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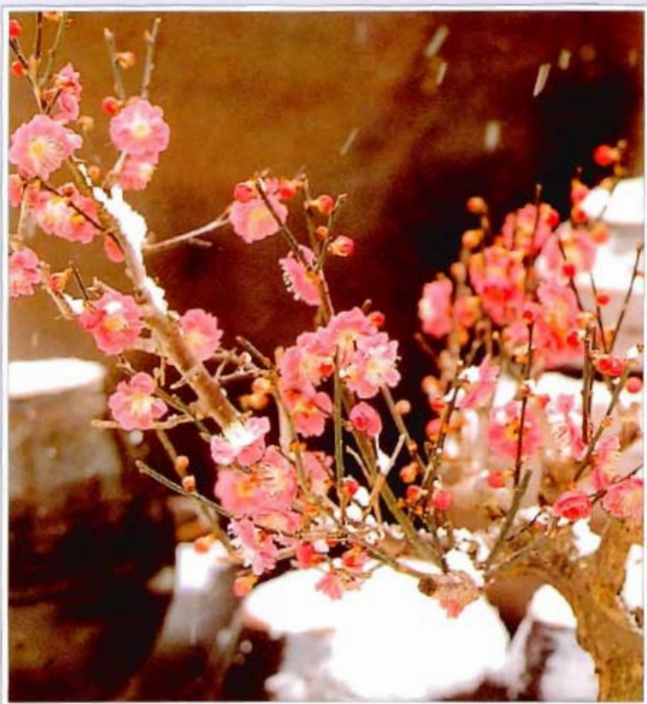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

1999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누가복음, 신명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2

1999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누가복음, 신명기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소서.
4.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6.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7.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8.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이미 마음에 가득한 감사와 감격

거룩한 말씀과 더불어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달에 있었던 청지기훈련을 통해서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과 직분에 대한 충성심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싹을 내고 줄기를 내어 풍성한 열매로 결실할 것을 믿습니다.

더구나 이번 달에는 전국의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귀한 강사들을 모시고 '복음과 리더십의 회복'을 주제로 제1회 전국 목회자 단기세미나를 열게 되었으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여러 장로님들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일꾼들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금번 세미나도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

IMF뿐 아니라 다가오는 2천년에 몰아닥칠 밀레니엄 버그 등 심각한 재난들이 예상되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안팎으로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고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일 뿐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길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 가정에서부터 변질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서 순수하고 충성되게 주님만 섬기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99년 2월

위임목사 김성관

충현의 만나

1999년 2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신명기 서론

모세오경 중 마지막책인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3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율법서요 또한 교육서이다. 시내산 언약의 주역들인 구세대가 그들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중에서 다 멸망을 받은 후에 아직도 율법에 익숙지 않은 신세대이 가나안 입성의 주역으로 떠 오름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에서 나타난 여호와와의 율법을 반복하고 확장하며, 불순종함으로 멸망한 구세대의 행위를 답습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하나님 백성들의 요건을 들어 권면하고 있다.

본서가 신명기라고 불리우게 된 데에는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본문 17:18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율법의 반복”, 즉 “계명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뜻을 함축해서 신명기라고 부른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세 오경의 종합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데, 무엇보다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가르치기 위함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은혜)에서 비롯되었는가를 가르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명기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율법을 재교육하기 위해 확대 적용 시킨 것

이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사랑과 충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이 언약의 갱신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새 언약"에 관한 예시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리는 모세의 설교 가운데서 새 언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인격을 여러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18장 15절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 자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강생하신(요 1:14)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여 주고 있다.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모세의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으로(33:4, 5) 또한 선지자로(34:10-12) 제사장으로(출 32:31-35)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신약에 인용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 신명기를 즐겨 인용했다. 특히 두드러지게는 예수께서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세번씩이나(6:13, 6:16, 8:3) 인용하셨다.

내용 흐름

1. 첫번째 설교 - 과거 역사의 회상(1:1-4:43)

1) 머리말 / 1:1-5

2) 40년 광야 생활의 회고 / 1:6-4:43

2. 두번째 설교 - 율법의 재교육(4:44-26:19)

1)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 4:44-11:32

2) 예배와 성결에 관한 법 / 12:1-26:19

3. 세번째 설교 - 경고와 예언(27:1-34:12)

1) 가나안에서 준수할 규례들 / 27:1-28:68

2) 모압평지에서 맺은 언약 / 29:1-30:20

3) 모세 최후의 행적 / 31:1-34:12

1

(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찬송 / 379장 본문 / 눅 16:1-31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한
다는 소식이 주인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를
파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청지기는 앞으로 살길이 막연하였습니다. 노동
을 하는 것도 어렵고 거지처럼 사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해낸 꾀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청지기가 일자리가
없을 때에 영접하여 청지기의 생계를 도울 것입니다. 청지기는 위급할 때
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빚을 탕감해 주었고 사람들을 사
귀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는 것입니다. 물론 청지기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
했다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가
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권한일 수 있습니
다.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
든 것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천국
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
은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지적인 능력, 건강한 정신, 몸, 물질, 가정, 사랑
하는 가족, 친구들과 이웃 이런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충성스럽
게 관리하여 영혼들을 하나님나라에 인도한다면 주님께서 더 크고 귀한
일들, 영원한 것을 우리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에 충성할 때 더 귀한 것을 맡기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에 충성하게 하소서. ② 하나
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영적으로 연약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 즉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리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고전 8:12).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범죄한 형제가 회개한다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 또 회개한 형제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므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결국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말고 연약한 형제일수록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 주소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의 죄악을 볼 때 우리의 무능한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중한 믿음을 갖고자 더욱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참 믿음은 형제를 세우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 기도 제목 / ① 형제를 위하여 더 큰 믿음을 갖고자 더욱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3

(수) 예수님의 재림

찬송 / 168장 본문 / 눅 17:20-37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늦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요 3:5).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심으로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노아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아의 심판의 경고를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판의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노아같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같은 온전한 순종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 ▶ 기도 제목 / ① 노아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낙심하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도록 간청하였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이 과부의 송사를 잘 해결해 줄 리가 없습니다.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과부는 사람이건 돈이건 어떤 의지할 힘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에게는 거절당해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거절당해도 또 찾아오고 찾아오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않았다가는 자신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결국 과부의 원한을 풀어 줍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며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응답은 있습니다.

- ▶ 기도 제목 / ① 믿음과 인내로 드리는 진정한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② 중현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선한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부자 청년의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했는지 질문합니다.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온전히 지켰다는 사실을 확신있게 답합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께서서는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부로 인한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청년에게 있어서 부는 마음에 중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어진 보물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견한 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때 영생이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나라의 귀중함을 깨닫고 세상을 포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본 문에서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삭개오라는 세리장과의 만나십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부자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에 편승하여 돈을 모아온 그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할까요? 그의 심령 속에 무엇인가 곤고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죄인인 삭개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여호수아 6장 26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을 얻었던 사건입니다. 이방인이요 죄인인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듯이, 동일한 지역에서 세리 삭개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구약의 그림자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침내 밀려오는 은혜는 삭개오로 하여금 회개와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평생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자까지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찾아다니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삭개오처럼 진정한 회심과 참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 행렬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오, 만왕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의 행렬입니다. 이것은
비록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행렬이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한
행렬입니다. 그리고 그는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영원한 어린양으로 입성
하시는 것입니다.

이 참되신 왕의 입성에 대해 무리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구속하시려는 뜻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한 일 때문이었습니
다.

예수님의 입성을 지켜보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는 아주 부정적인 자들
도 있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을 향한 백성들
의 찬사를 멈추게 하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이기심과 질투심에 사
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서는 성에 가까이 다가가시더니 갑자
기 우십니다(41절).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
고, 인간을 만나 주시는 이 성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내
다보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성전이 강도의 굴
혈로 바뀌어 버린 것에 대하여 진정한 왕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한 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사실은 이 땅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하늘로부터의 권세를 빙자해서 땅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권세의 자격을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3절). 그들은 세례요한이 가진 하늘로부터의 권세를 믿지도 않으면서 백성이 두려워서 인정을 해야 되는 자신들의 모순과 갈등 속에서 대답하지 못한 채 주저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이들의 완악함을 들춰 내셨습니다(9-16절).

그러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악한 행위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을 시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하고 묻습니다. 당시의 막강한 권력인 로마의 정권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간계를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십니다(25절). 사실 그들에게 참된 권세에 대한 깨달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음모가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9

(화)부활에 대한 교훈

찬송 / 155장 본문 / 눅 20:27-47

예수님에 대한 반감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뿐 아니라 이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까지 가세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곱 형제중에서 맏아들과 결혼한 여인이, 일곱 형제의 연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일곱형제들과 결혼했다가 부활했을 경우, 최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기 전에 한 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직에 있었으나 이방의 정권과 문화와 결탁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과 손을 잡고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악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성의 판단은 있었으나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자들을 향하여 한 마디의 경고와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조심시키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부활과 영생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부 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신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헌금에 담긴 그 사람의 헌신의 정도를 평가하셨습니다(4절). 사실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많은 돈을 귀히 여기고 적은 동전은 함부로 여기는 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부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헌금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사람들이 부자의 많은 헌금을 귀히 여기고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역시 물질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성전을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을 보이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자들은 계속해서 멸망의 징조를 물어옵니다(7절). 예수님께서 멸망의 징조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것은 우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8절). 그리고 전쟁과 자연의 재해가 일어날 것(9-11절), 또한 인간 관계가 원수맺음으로 치달아 가게 될 것(12-17)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 이 세계가 그의 말씀대로 심판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5-26절). 그날은 화가 미치는 날이요, 큰 환난과 진노가 임하는 날입니다. 곤고한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구속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무지함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고통과 화를 초래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가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보고서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면 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 비유를 설명하신 후에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뜻밖에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자들에게는 고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마지막 날에 임할 영광과 진노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사상적인 흐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아직까지 어두움의 일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고통의 때가 오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통의 날을 피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리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사건이 급진전되어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꼬?” 고민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고민으로 둘러싸여 있는 무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몇 푼의 돈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사주에 충실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제자들과 보낼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게 합니다.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영영히 기념될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밤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가슴과 머리에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를 각인시켜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지고 마시고 먹게 되는 “떡과 포도주”를 영원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물하신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심한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누가 크냐?” 라는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엄중한 예식에 참여한 후에 일어난 제자들의 추태입니다. 그 모습보다 더 무서운 경고가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예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조심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날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시간에조차도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다가온 줄 아시고 “습관을 좇아”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절규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혼미한 제자들에게 정신이 드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들의 동료인 “가롯 유다”가 부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음흉한 입맞춤을 보냈습니다. 비록 제자들 가운데는 스승을 위해 “검”을 들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예고처럼 “베드로”는 천한 여종의 도전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추태는 베드로의 남은 생애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통탄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다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악인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은 “희롱과 욕설과 때림”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여 “예루살렘 공회의 종교 재판정”에 앉혔습니다. 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과 죄목으로 예수님의 목을 죄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신이 죽으실 것, 가롯 유다가 배반할 것,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한 경고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으로 보면 비진리 같지만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래에 대한 모든 말씀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에 귀기울이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빌라도 앞에 세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기와 나중에 돌아오게 될 책임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넘겼습니다. 헤롯은 상당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적이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속이 상한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평소 원수처럼 지냈지만,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친구가 되어 예수님을 죽이는 데 공모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죄함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석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악에 취해 있는 무리들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민란과 살인’의 죄목으로 갇힌 사형수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함성은 천지를 진동했으며, 재촉하는 무리들의 고함을 억제시키지 못한 채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재판을 종결합니다.

악에 도취된 무리들의 절규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유부단하게 악에게 끌려가는 빌라도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통당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악인들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악을 공모합니다.

▶ 기도 제복 / ① 악한 일에 도취되지 않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복 /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 짧지만 기나긴 마지막 행진에 오르게 됩니다. 골고다로 오르는 주변에는 억지로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 조소하고 고통을 안겨 주던 무리들,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여인들, 골고다에 함께 달릴 두 명의 행악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이 쓸데없는 자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드디어 제 육시(오후 3시)가 되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름답게 매듭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편안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백부장에게서 아름다운 탄성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죄없으신 예수님이 죄많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아름다운 광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원이지만 그들이 하는 모의에 동의하지 않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바위에 관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새 창조였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수님은 자신이 생전에 예고하셨던 것처럼, 또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을 들은 백성들, 또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자신들의 일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중 일부는(사실 이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 드리기 위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떠났습니다(1절). 시체가 누워있을 무덤을 상상하며 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난 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들은 자주 약속을 잊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예수님 자신이 했던 부활의 메시지는 까맣게 잊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로부터 책망이 섞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한 마디가 더 들려 왔습니다. “갈릴리에 계시л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번쩍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들의 분주한 삶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을 쉽게 잊어 버리고 여전히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예수께서 다시 살아 나신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자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부활의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종종걸음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인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도 터무니없는 증거로 치부해 버리고 믿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완악함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의 영으로 오해했습니다(3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하늘의 참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 버렸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조차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 그는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의 무덤은 인봉되었고 그 앞에는 파숫군이 지키고 서 있었으나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에 그 안에 있던 시체는 없어졌고, 없어진 시체 때문에 군병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온 예루살렘이 떠들석하도록 유언비어를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이 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날 광야에서 반역하던 구세대들은 광야 중에서 멸망받고, 이제 신세대들이 남았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진군할 것을 강권합니다. 조상들의 실패를 상기시키면서 신세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6-8절).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뻔히 두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그들이 만난 형편에서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행군한 이스라엘의 구세대가 반역함으로 실패했던 것과 같은 실패를 그들은 또다시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서간 세대들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역하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백성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킨 것은 죄악을 결코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이었습니다(욥 8:3).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은 여전히 악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 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가나안에 입성할 자로 구별하여 남겨 두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한 신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택하여 세우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도 하십니다(고전 1:26-29).

하나님은 자녀라도 순종치 않을 때에는 결코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라도 결코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불순종의 죄악에 대하여서는 끝내 그 죄값을 찾으십니다(출 20:5).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불꽃 같으신 눈으로 우리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 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이 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약속받은 백성들이 남김없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불순종하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 신세대를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조상들을 향하여 주신 언약을 다 이행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만한 많은 시험들과 시련들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경을 결코 양보할 수 없었던 모압과 암몬지경을 통과했습니다. 한걸음씩 약속의 땅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신뢰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자기 조상들이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가를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대적들로 하여금 때로는 "당황"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혼란"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끼치실 이 무서움과 두려움은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수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출 15:15, 민 22:3)

우리의 최대 무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21

(주일) 제목 / 바산왕 옥을 정복함

찬송 / 390장 본문 / 신 3:1-29

본 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 왕 시혼을 정복한 후, 북으로 더 전진하여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산 왕 옥의 영토와 그 거민을 철저히 정복한 내용과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한 후 모세가 드리는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은 르바임(거인족)의 유일한 잔존자로 그 체구가 매우 장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바산 왕국은 헤스본 왕 시혼이 이스라엘에게 무참하게 패배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적할 만큼 강대했고 또한 요새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대한 바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헤스본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산 왕국을 철저히 진멸함으로써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 대부분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고 가나안의 7족속은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늘 주 안에 있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담당하는 학교, 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본 문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라는 모세의 간절한 권고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가감없이 지킬 것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의 권고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치 않다가 징벌을 받은 역사적 사건을 들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교훈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촉구하기 위함이었습
니다.

아무튼 모세의 권고는 인생의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범한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본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참된 행복을 누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찾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 법도와 규례를 준행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구속물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하는 생명률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율법준수를 통하여 참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속률이 아니라 생명률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본 문은 모세가 요단 동편 땅에 세 개의 도피성을 지정한 데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삽입 단락으로써 도피성의 위치, 도피성 지정의 목적, 도피성의 이름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지정된 도피성은 모두 6개였습니다. 그 중 세 개는 요단 서편에 위치했고, 또 다른 세 개는 본문에서 보듯 요단 동편에 위치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 준 직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 지파의 기업을 각기 중앙에 도피성을 지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머지 요단 서편의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정하였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인과 응보적 율법의 규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비롯된 구원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 2:1) 인간에게 영원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알지 못했던 말씀을 새로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서늘 새롭도록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도피성 되신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 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본 문은 모세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의 시작으로 출20:2-17에 기록된 십계명을 재차 언급하기 위한 도입부입니다. 이 중 1절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원본적인 명령이며, 2, 3절은 호렙산 언약의 의의, 4-6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언급입니다. 호렙산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과 어느 개인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전 민족적 언약입니다. 사실이 전의 여타 언약들은 단순히 일개 족장과 맺어진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언약은 그 후손에게만 계승되거나 아니면 당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호렙산 언약은 일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비록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마땅히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인 것입니다. 또한 그 율법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함을 입은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충실하게 지켜야 하는 율례로 계승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고, 그 안에서 율법의 모든 정신이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율법, 그것은 사랑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본 문은 율법 전반에 대한 강론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 2절은 율법의 목적에 대한 기술이며 3절은 율법 준행에 따르는 축복에 대한 기술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한 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순종에 '복과 은혜'로 보상하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약속된 축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심을 다하여 준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율법을 포함한 단어가 세 가지 나타나는데 그것들의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계명"을 의미합니다. "규례"는 법령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명령을 포함한 율법을 의미합니다. "법도"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또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중언법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육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역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하소서.

건 강한 신앙 생활을 위해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땅 거민을 완전히 섬멸하고 우상을 파괴할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한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더 나아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세속의 숲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에 적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롬 12:2)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와 우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편했다고 할 수 없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변화를 겪습니다. 새로운 환경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곤경에서 벗어나면 그들 중 대다수는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그들은 전혀 다른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봉착하게 될 몇 가지 유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순종(11, 20절), 물질주의(12-13절), 망각(14-16절), 교만(17-18절), 우상숭배(19-20절).

굽이 쳐 흐르는 시내와 풍성한 수확만큼이나 타락하고 부도덕한 종교로 유명한, 새로운 유혹이 기다리는 땅 가나안! 그들은 이 낯선 영토에서 특히 망각이라고 하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로 이스라엘은 만나를 비롯한 좋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혹에 직면한 성민을 향한 모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맙시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매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붙드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오늘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취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대다수가 ‘죄를 많이 지어서’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선행이나 고행이나 기도 등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획득하려는 이 보편적인 인간 성향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면 무엇이라고 말할지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 극적인 승리와 그 결과로 누리게 된 번영을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가나안 족속들의 강대함을 대조시킵니다(1-2절). 그리고 그들을 단번에 진멸하실 것을 예고함으로써(3절) 장차 있을 가나안 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승리는 이스라엘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들의 의로움 때문에 승리가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광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보게 하소서. ② 2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3월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

【附註】本報爲便利讀者起見，特設「讀者信箱」一欄，凡有關於本報之建議、批評、投訴等，請逕寄本報編輯部，當即轉請有關人員處理，並請讀者注意，凡投寄信件，請註明真實姓名及地址，以便聯繫。

【附註】本報爲便利讀者起見，特設「讀者信箱」一欄，凡有關於本報之建議、批評、投訴等，請逕寄本報編輯部，當即轉請有關人員處理，並請讀者注意，凡投寄信件，請註明真實姓名及地址，以便聯繫。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전도서 서문

전도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부조리와 무의미성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사와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경외'를 인생 유일의 의미로 드러내는 책입니다. 전도서의 영어이름인 '이클리지에 스티즈'는 '회중 앞에서 연설하는 자'로서 강론자 혹은 선생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강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곧 내용과 문체 등을 근거로 이 강론자가 포로기나 포로기 후의 인물일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아직까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1장 1절에 기록된 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는 언급에 비추어 그가 솔로몬일 것이라고 봅니다.

전도서는 잠언의 말씀 및 묵상, 시, 이야기 등 다양한 문학적 장르들을 포함하는 복합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장르들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은 '모든 것이 헛되다'(1:2)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 이면의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서 추구하는 온갖 가치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경외와 그의 계명의 준수'(3:12, 12:13)를 통해서만 의미를 갖게 될 것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전도서의 주요 내용

1. '모든 것이 헛되다' (1:1-11)
 - 1) '헛됨' 의 서론(1:1-3)
 - 2) '헛됨' 의 실례(1:4-11)
2. '모든 것이 헛되다' 는 사실의 증거(1:12-6:12)
 - 1) 경험한 바에 따르면(1:12-2:26)
 - 2) 관찰한 바에 따르면(3:1-6:12)
3. 허무한 삶에 대한 조언(7:1-12:14)
 - 1) 악한 세상에 대처하기(7:1-9:18)
 - 2)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조언(10:1-12:8)
 - 3)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12:9-14)

제 1 과

전도서(1)

무능한 인생

찬 송 / 474장

읽을 말씀 / 1-2장

공부할 말씀 / 1:2-18

먼저 읽기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모든 것이 헛되다' 고 선언하므로 인생을 비관론과 허무주의로 몰아가는 전도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인본주의적인 작품으로서 성령님에 의해 영감받은 책이 아니며, 우연한 기회를 통해 성경책의 일부로 포함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전도서를 해석하기보다는 포기하려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전도서는 모든 세상적 추구의 헛됨을 드러냄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속한 더 높은 것들로 향하도록 하려는 뜻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시간과 공간에 속한 것, 곧 세상적 가치들에 매여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고발함으로써 읽는 자들로 하여금 인생의 참 의미를 갈구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 인간의 처절한 무의미성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좌절시키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전도자는 기본적으로 인생의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대단히 진지한 탐색자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13절 상반절)
2.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13절 하반절-14절)
3. 그는 인간의 무능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15절)
4. 사람들이 얻고자 할 뿐 아니라, 자신도 얻고자 힘썼던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그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17-18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서, 세상살이와 자기 인생에 대하여 진실로 진지한 사람 중 허무주의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빈 공간'과 죽음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 인생에 대하여 진지해질수록 허무주의자가 되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안경을 쓰고서, 인간의 무능함, 인간이 추구하는 온갖 것의 헛됨을 지적함으로써 인생의 영적 결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러한 깊은 비관론에 빠져 있는 불신 형제나 이웃은 없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2.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상에 대하여 등지라'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심으로 세상 한 가운데서 '변혁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세상에 대하여 회피적입니까? 아니면 변혁적입니까? 나와 관련있는 일들 중,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를 시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자녀 교육 문제, 폭력적 게임이나 음란물 문제, 돈 씀씀이 문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들에 참여하는 문제 등)

제 2 과

전도서(2)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찬 송 / 497장

읽을 말씀 / 3-6장

공부할 말씀 / 3:10-17

먼저 읽기

전도자는 이제 '모든 허무' 을 넘어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곧 '모든 것이 때가 있다' (3:1-9)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시간이라는 것이 중립적이거나 공허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도전과 기회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임을 알려 줍니다. 모든 '때' 에는 나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때' 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때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이에 대하여 이 모든 '때' 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원' 이라고 말합니다(11절). 그리고 이제, '허무' 를 넘어서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중심에 심어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 갑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전도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잘 대비시켜서 설명합니다.

그가 설명하는 바 하나님은

1) 만물에 어떤 법칙을 심어두셨습니까?(11절 상반절)

2)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11절 중반절)

3) 사람의 한계를 어떻게 정하셨습니까?(11절 하반절)

2. 만일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 생활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 것이라고 말합니까?(12-13절)

3.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일절 더하거나 덜할 수 없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14절)

4.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마지막 때에는 무엇이 있게 됩니까?(17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나는 무엇을 하거나 결정하는 '때' (언제 그것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급한 마음과 경험과 상식 등에 의지하여 '때' 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있었거나 조만간 있게 될 일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십시오.

2. 12-13절에서 말하는 바,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마땅한 노동의 대가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삶은 일견 평안해 보이고 보람있어 보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선을 행할 만큼 선하지 않고, 적은 노동으로 과분한 대가를 받고자 머리를 쓰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아름다움은 흐뜨러지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대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행과 노동의 기쁨 자체가 인생의 전부일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상의 일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임에도, 예수님께서서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에 멸망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눅 17:27). 영원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삶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 3 과

전도서(3)

한 걸음의 승부

찬 송 / 495장

읽을 말씀 / 7-9장

공부할 말씀 / 7:13-18

먼저 읽기

전도자는 초반부터 계속되어오던 '허무함'에 대한 길고 긴 이야기들을 잠시 접어두고, 7장에 들어서면서는 몇 가지 삶의 지혜가 담긴 참언들을 소개합니다(7:1-12).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인생의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소개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조리와 모순들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전도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각각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14절 상반절)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4절 하반절)

3. 전도자가 보는 인생의 부조리는 무엇입니까?(15절)

4. 그 부조리 앞에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라고 권면합니까?(16-17절)

5. 그 부조리를 궁극적으로 넘어서게 만드는 힘은 무엇입니까?(18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배경에는 내 오관으로 느끼고 맛보고 알아야 속이 시원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없느니만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에서 이 영향은 '내 머리

1. 속에 모든 것을 넣어두려는 욕구'로 나타납니다. 남이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모를 때, 우리는 속이 탐나니. 잘 모르겠는 일이 있으면 그대로 남겨 주지 못한 채 억측이라도 해서 자신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알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어떠합니까?

2. 의인과 지혜자가 망하고 악인이 흥하는 현실을 보면서, 전도자는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중용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중용을 위한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항상 치우칩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모든 답이 담겨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애쓰기 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라는 말입니다. 요즈음 나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느 한 극단에 자주 치우칩니까? 아니면, 중용을 지키려고 의지를 발휘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의 권면대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1. 구약의 문명적 전통

2. 구약의 문명적 전통

제 4 과

전도서(4)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찬 송 / 30장

읽을 말씀 / 10-12장

공부할 말씀 / 11:9-12:14

먼저 읽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정신적인 기억작용을 활발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아서 그분을 의뢰하고 순종할 것을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역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그분이 온전히 창조하신 것을 왜곡시킨 우리의 비뚤어진 상태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결국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붙들면서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권면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되 꼭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11:9)
2. 전도자는 청년이 '창조자를 기억해야' 하는 때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12:1, 7)
3. 곤고한 날, 곧 육신이 늙고 병들게 되는 날에 대하여 전도자는 매우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12:2-6)
4. 전도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12:13-14)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본문에서 말하는 '곤고한 날(육신이 쇠약하여 의식조차 흐려지는 날)'에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곤고한 날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앞에 놓고 먼저 아직까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건강이 남아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만일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생활은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일상에 묻힌 채' 의식없이 미워하고, 의식없이 불평하고, 의식없이 정죄하고, 의식없이 욕심부리면서 살아갑니다. 일상에 묻히지 않고, 매 순간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남성도구역예배공과

남성도 구역예배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6 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무장하자 I

찬 송 / 376장
암송할 말씀 / 고후 3:6

목 상

고린도후서 3:6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1. 99년도 청지기훈련에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2.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으로 봉사해야 합니까?

3. 의문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씨 뿌리는 자
(마 13:3)

4.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5.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고 / 고전 3:6)

-
6. 오늘 우리가 나가서 뿌려야 할 씨는 어떤 씨입니까?(마 13:19, 벵전 1:23)

사람을 낚는 어부
(마 4:19)

7. 예수님께서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사람들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입니까?

8. 본문에서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9. 본문에서 어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첫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10.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참고 / 마 11:29)

11.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거나 혹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어떤 어려움 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 토론했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